

국립전주박물관, 지정문화재 특별공개

전북의 소중한 보물 6점 엄선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지난 6월 27일부터 상설전시관 역사실에서 관에 기탁된 개인 소장 지정문화재를 선별하여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 제도'는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다.

또한 국립박물관은 '문화재 기탁' 제도를 통해, 박물관 전시 및 연구에 활용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장 지정문화재 혹은 지정문화재급 유물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개인소장 및 전주박물관 소장 전북의 소중한 보물 6점을 엄선하여 특별 공개하는 자리다.

고령高嶺 신씨辛氏 종중宗中에서는 신말주申末舟(1429~1503) 등 열 명의 일로들을 묘사한 <심로계첩十老契帖(전북유형문화재 제142호)> 등 총 4점의 지정문화재를 박물관에 기탁했다.

신말주는 지조 높은 선비이자 은사의 모습으



로 역사 속에서 부각된다. 26세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1578년 47세때 전주 부윤으로 일정 기간 관직에 몸담았으나, 대부분의 생애를 관직과 상관없는 처사로 보냈고 노년에는 순청에 귀래정歸來亭을 짓고 유유자적한 삶을 누렸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가까운 벗들과의 만남을 기념한 그림이 바로 심로계첩이다. 이후 18세기에 김홍도가 원본을 묘사한 <심로도상첩十老圖軸帖(삼삼미술관 리움 소장)>이 전해 흥미로운 비교가 된다. 남원양씨 종중에서 기탁한 남원양씨 종중



문서(보물725호) 7점, 개인 소장 <이상길李尙吉(1556~1637) 초상(보물792호)> 등도 함께 전시되며, 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10폭병풍(보물1876호)>도 오랜만에 다시 관람객을 맞이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전북 지역 역사문화 관련 지정문화재들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며,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멋과 향기를 느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문성 기자

전통과 퓨전으로 무장한 야외 공연 펼쳐진다

진안마이산 북부광장서 '여름을 여는 1004 콘서트락' 개최

진안군과 전북도교육청, 전라북도립국악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여름을 여는 1004 콘서트락' 공연이 7월 4일 저녁 7시 마이산 북부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오후 6시 20분 비보이, 서커스, 미술의 사전 버스킹 공연과 2019 진안 흥삼축제 D-10 성공기원 이벤트 공연으로 꾸며진다. 특히 공연 시작 전 관객과 소통하고 흥겨움이 묻어나는 신명난 놀이판을 만들 계획이다.

저녁 7시부터는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대중가요, 영화 OST 연주, 국악가요 박애리, 색소폰 이정식, B-boy·서커스와의 협연, 무용과 타악의 어울림등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역동적인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30명과 무용단이 함께 하는 사물놀이와 태권의 후예 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한다.

공연은 군민, 관광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초청한 진안군 관내 초·중·고생 600명에게는 도시락과 안전한 교통편을 제공하여 소풍 같은 공연으로 여름밤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공연은 오감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여름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시원하게 해줄 것"이라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진안 마이산을 찾아 소중한 예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박물관, 유적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백제문화유산 녹턴' 개최

국립익산박물관은 백제문화유산주간을 맞아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익산시·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박물관과 미륵사지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백제문화유산 녹턴'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곳)가 2015년 7월 8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백제문화유산 녹턴'은 유물 및 유적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한여름 밤 노을이 붉게 물든 익산 미륵사지를 거닐며 유적에 얽힌 옛이야기도 듣고, 박물관에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보물 1991호) 등 수준 높은 백제 문화재를 큐레이

터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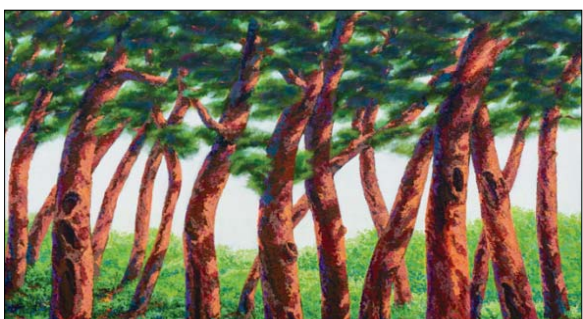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7일까지 익산박물관 누리집(issan.museum.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백제 기원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수막새 배지 만들기'와 전통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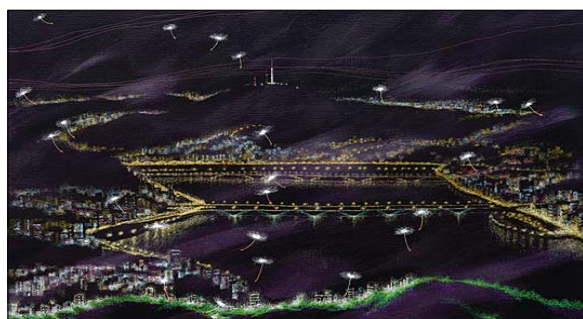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류지선 작가 - 소나무.



류지선 작가 - 민들레 흙씨.

생명력 가득한 원시적 우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류지선 작가 7번째 개인전 열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오는 3~8일 '류지선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중앙대학교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전공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이외에도 200여 회의 단체전과 다양한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구로미술 고문, 상형전, 한국자연동인회, 브러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백석예술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하얀 민들레 흙씨가 우주 선율을 따라 색채의 평원을 누린다. 원시적 우주에 대한 기억이 탑재된 듯, 민들레 흙씨들은 길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하양의 색채 평원, 생명의 씨앗이 싹 트고 지나는

생명의 공간이다. 하늘, 숲, 강, 나무와 꽃 그리고 도시의 불빛 모두 생명의 색채 평원에서 서로 이어지며, 우주적 관계를 형성한다.

작가는 직접 민들레 흙씨가 되어 총체성으로 연결된 색채 평원의 근원을 찾아 길을 나섰다. 작품 속의 민들레 흙씨는 자율적이면서 우주의 질서를 존중하며, 자유롭지만 산만하지 않다. 생명을 나르는 고귀함이 자연스럽게 색채 평원에 스며든다. 민들레 흙씨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 총체성, 공동체, 자유, 평화, 마음의 세상을 만나게 된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던 자운영 꽃밭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파편화되고 찢겨진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민들레 흙씨라는 우주선에 탑승하여 지구 밖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느낌도 난

다. 우리가 잇고 사는 세상이자 우리의 근원 이면서도 찾지 않는 곳, 아름답고 생명 가득 한 지구의 모습이 보인다.

류지선의 그림에는 보이는 것의 심층 구조에 흐르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탐색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그림 속에는 색채를 머금은 '선'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민들레 흙씨는 선을 통해 기억을 회복한다.

작가는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축순의 생명력에서 선을 발견했다. 선은 대나무 숲을 휘둘러 강한 생명력을 발산한다. 선은 생명의 태동과도 같다. 원시적 우주의 원형적 의미가 선을 타고 흐른다. 민들레 흙씨도 선을 따라 생명의 공간을 찾아가다.

이번 전시에선 민들레 흙씨의 유영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력 가득한 원시적 우주의 세계로 초대하며, 일상에 파묻혀 생명의 근원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자 한다.

/김진성 기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일부터 31일까지 (사)한국건축기획회(회장 강철희)와 함께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공간 ▲창의적 아이디어로 거리, 광장 등, 지역사회 도시 공간을 개선 있고 매력적 공간으로 개선한 공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공간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한 공간 등을 찾는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전용 누리집(www.goodplac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운영 사무국(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한솔교육빌딩 14층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운영사무국)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2019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개 작품(대통령상), 최우수상 1개작품(국무총리상), 우수상 4개 작품(문체부장관상)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작에는 상금이 부상으로 함께 수여된다. 시상과 수상작품 전시는 오는 9월 중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뉴시스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